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4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원효와 장자

원효의 글은 비유가 풍부하고 수사가 화려합니다. 가령 <대승기신론소>나 <금강삼매경론>의 서문을 보십시오. 서로 모순되는 두 항을 설정하고, 그것들이 서로를 물고 뒤채도록 물고 가는 그 현란한 솜씨를... 그 끝에서 우리는 사물의 대립이란 그 자체의 실상이 아니라 우리가 부여한 이름의 차이일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또 불교학의 문헌도 거리낌없이 섭렵했습니다. 기록은 그가 “불교뿐만 아니라 잠서(讖書)와 의서(外書)까지 보았다”고 하는데, 그가 불교를 그야말로 ‘노닐며(遊)’ 익혔던 흔적을 우리는 그의 문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효는 특히 장자에게 크게 빚지고 있습니다. 원효는 그로부터 철학적 통찰은 물론 상상력과 비유의 면에서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실례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앞 강의에서 원효가 화염의 소식을 두고, “봉황(鳳凰)이 푸른 구름을 타고 올라 산악을 내려다 보는 것과 같다(若乃鳳皇翔于青雲, 下觀山岳之卑)”고 읊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언설이 여자와 방편인 이상, 발화자의 개성과 수신자의 근기에 따라 다양하고 풍부할수록 좋지 않을까요. 설법이든 화두든 맨날 같은 어투로 영부새처럼 리피트하는 것이 더 안타깝고 쓸쓸한 일이 아닐까요.

원효 자유로이 노닐며 익힌 불교

원효는 자유로운 정신의 소유자였습니다. ‘수사품업, 유처무항(隨師業業, 遊處無恒)’이라. 일정한 스승에 매이지도 않았고,

기를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황하를 시냇물이라나... 장자의 배포를 집작하시겠습니까. 티벳쪽 청해(淸海)에서 시작해서 함곡관 근처에서 물길을 꺾어 동해로 흘러드는, 장장 5,500킬로의 긴 강을 시냇물 정도로 내리 깔아 버리다니 말입니다. 그 곡절을 알기 위해서는 제 지리한 설명보다, <장자>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듣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쳐진 바다를 보고 나니, 세상에! 내가 그대의 문전에 와보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두고두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될 뻔 했구료.” “북해의 약(若)이 말했다. ‘우물 안 개구리에게 바다를 말해 줄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사는 곳에 매여 있기 때문이고, 여름벌레에게 얼음을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계절에 걸려 있기 때문이며, 짜잘한 학자(曲士)들에게 대도(道)를 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배운 지식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없고 흥수나 가뭄은 아는 바 없어, 강이나 개울 따위의 규모와는 아득히 견줄 수 없다. 그렇지만 나는 한번도 그것을 자랑스레 여긴 적이 없다.” “천지(天地)로부터 형태를 얻고 음양(陰陽)에서 생명을 받은 것들 사이에서 나는, 바다란 존재 또한 커다란 산 속의 돌맹이 하나, 나무 한 그루에 불과한 것이다. 내가 나의 하찮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무엇을 빠지겠는가. 드넓은 천지에서 나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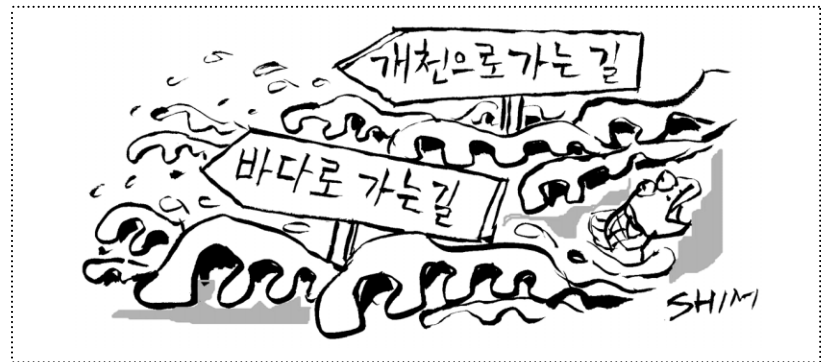
다.” “옛 위대한 군주들(五霸)의 손조로운 계승이나 세 현명한 왕들(三王)의 힘든 싸움, 어진 인간들(仁人)의 가슴깊은 우려나 관료들의 근면한 노력도 또한 예외 없이 이런 터럭처럼 하찮은 것들이다. 백이(伯夷)는 이를 포기함으로써 명예로 삼았고, 중니(仲尼, 공자)는 이를 말함으로써 박식으로 삼았다. 이런 것이 다 빠지는 것거리로서, 불어난 가을 강물의 장관에 대해 그대가 가졌던 자만심과 같은 종류의 것이다.”

강 언덕에 어른거리는 게 소냐 말이나

누런 황하와 푸른 바다

“가을 물 때가 되어 수많은 지류의 물이 황하(黃河)로 쏟아져 들어왔다. 탁한 물결이 사납게 넘실거리니, 저쪽 둔덕과 강섬에 어른거리는 것이 소인지 말인지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 장관(壯觀)을 보고 강의 신 하백(河伯)이 ‘지상의 아름다움은 모두 나에게 있다!’고 기뻐하며 강의 흐름을 따라 동쪽으로 내려갔다. 이윽고 북해(北海)에 다다라 동쪽을 바라보매 바다의 물결이 잡히지 않아 얼얼빛이 하얗게 질렸다.”

“망망한 대해에 한순마저 하백은 북해의 신 약(若)에게 이렇게 말했다. ‘항간에 이르기를, 이치를 몇개 깨치고 나면 자기만한 사람이 없는 줄 안다던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소. 또 이전에, 공자의 가르침을 깎아 내리고 백이의 절의(節義)를 우습게 아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었어도 도무지 믿기지 않았었는데 지금 그대의 끝없이 펼



그런데 지금 그대는 좁은 강(江河)을 나와, 큰 바다를 보고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으니 함께 더불어 큰 이치를 논할 만 하구나.

“하늘 아래 물 가운데 바다보다 큰 것은 없으니, 온갖 개울물이 쉬지 않고 쏟아져 들어와도 나는 넘치는 법이 없고, 내 꼬리(尾闕)에서 끊임없이 물이 새어나가도 나는 마르는 법이 없다. 계절의 변화에도 동요가

다의 크기란 전부를 뭉뚱그려도 큰 늪 속의 개미구멍이고, 그 바다에 둘러싸인 육지(中國)란 커다란 창고 속의 좁쌀 한톨에 불과한 것... 인류는 땅 위에 얽힌 수많은 생명 가운데 하나인데, 거기서 또 한 개인이란 땅 위의 곡식을 먹고 배와 수레로 이동하는, 아홉 대륙(九州)의 거주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니, 온 생물에 비추어 그는 말(馬)의 몸에 붙은 수많은 털만큼 하나같은 것이 아

장자는 화염의 선배인가

여기 오제(五帝)는 요순을 포함하여 아득한 중국의 전설시대에 불어넣는, 의료를 일으킨 문명의 영웅들입니다. 삼왕(三王) 또한 그들을 이어 이상적인 통치를 펼쳤던 정치지도자들입니다. 또 어진 인간들이란 타인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과 동정심으로 사회를 개혁해보려는 뜻을 품은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장자는 이 모든 노력들이 인간세(人間世)의 하찮은 노력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인간세의 노력들을 자랑하거나 명예로 삼는 것은 ‘우물 안 개구리’의 작태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 물어보겠습니다. 위의 북해의 탄식과 화염의 소식이 같은 것입니까, 다른 것입니까. 토마스 머튼이 선(禪)을 일컬어, ‘불교를 아버지요, 노장을 어머니로 둔 자식’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시고, 또 주자가 중국의 대승 이래의 발전을 장자로 부터 빌려거나 훗날 것이라고 혹평했던 것을 두루 참고하셔서, 이 화두를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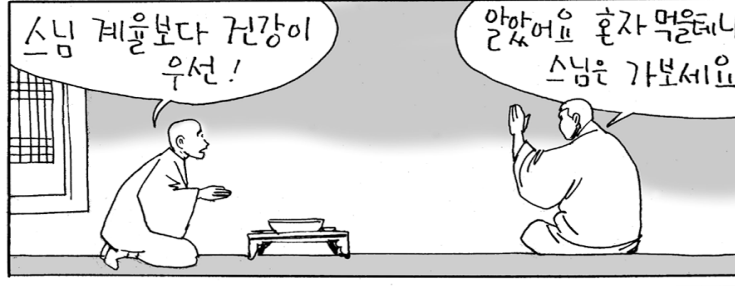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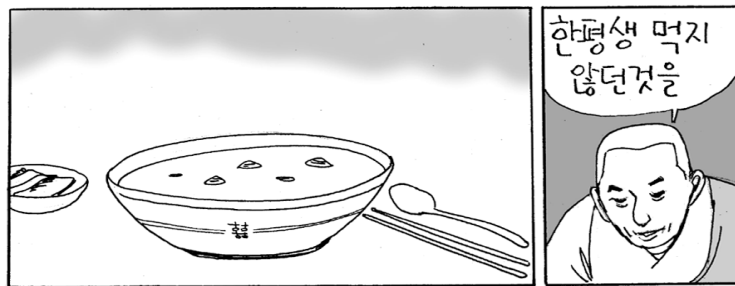
한국학중앙연구원

주장사 따라...

① 홍법 스님의 ‘장작’



조태호



홍법스님(弘法, 1930-1978): 1948년 한공(漢空)스님을 계사로 월하(月下)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법호는 운조(雲照). 근검절약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한 것으로 유명.

네티즌 교리문답

“만(卍)자 의미와 유래는 무엇입니까?”

만(卍)자는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卍’자는 십자와 마찬가지로 예전부터 세계 각지에서 사용되고 되고 있는데, 그 의미와 기원이 궁금합니다.(초심자)

답1: 인도에서는 비슈누 신의 가슴에 난 털 모양이 ‘卍’자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태양을 숭배했던 이란족은 태양의 방광을 본 뜬 모습이라고 해 숭배했지요. 아메리카인디언은 방향이나 바람의 상징으로, 중국에서는 난간 무늬로 사용했습니다. 인도 이외에도 아시아, 그리스, 로마 등 고대문명이 찬란했던 지역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모양이 ‘卍’자입니다. 인도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의 모습에는 ‘卍’자 모양이 많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불학자)

답2: ‘卍’자는 불교를 상징하는 표지입니다. ‘길상과 만덕’을 의미하지요. 부처님의 가슴의 털 모양도 ‘卍’자 모양이었습니다. 발가락과 발등, 발꿈치, 복사해, 정강이, 무릎, 정장지, 허리, 옆구리, 배 등에도 ‘卍’자 모양이 있었습니다. <수행본기경>에는 부처님이 보리수 아래에서 수도할 때 풀을 깔고 앉았는데, 그 풀의 모양이 ‘卍’자 모양의 길상초였다고 합니다. 인도의 아미타파티에서 출토된 불상 조각(石刻)에 여러개의卍자가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금강소석)

답3: 만자는 산스크리트어로 ‘svastika’입니다. ‘sw’는 행복, 번영을 뜻합니다. 만자를 사용하는 세계 각국에서도卍자를 ‘희망과길상, 상사롭다’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卍자는 영어의 ‘L’자 4개로 구성돼 있는데, 현대 서구에서는 이 4개의 ‘L’자를 생명(Life), 광명(Light), 사랑(Love), 자유(Liberty)를 뜻하는 머리글자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금강소석)

답4: 불교의 만(卍)자는 쉬지 않고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만물은 오직 나뉠 뿐 끝간데 없이, 앞뒤도 없고 시발점도 종점도 없이 영원히 돌아간다는 표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끄트머리를 구부러 놓은 게 돌고 돈다, 생명의 불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바퀴라고 해도 됩니다. 법률 마크도 불바퀴요卍자도 불바퀴이죠. (불바퀴)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Crossword puzzle grid with numbers 1, 10, 13, 2, 12, 15, 3, 9, 4, 16, 5, 11, 8, 14, 6, 7.

상식퍼즐

- 1. 불교, 원불교, 가톨릭의 여성 성직자들의 모임 2. 깊은 산속의 으스스한 골짜기 3. 하급 법원의 판결 등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의 심리를 청구하는 일 4. 계율을 어긴 스님이 다른 스님에게 참회하는 의식 5. 청와대의 옛 이름 6. 파파파로 촬영한 필름을 효과적으로 편집하여 영상에 솔로 완성시키는 기법 7. 방위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기구.

- 1. 부처님이 갖춘 32가지의 뛰어난 신체적 특징 8. 아기를 잉태할 정조를 꾸는 꿈 9. 시각장애자를 지칭하던 말 10. 누우치는 마음 11. 전남 광주의 옛 지명 12. 산 속에서 저절로 자라는 삼으로 최고의 명약 13.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행위 14. 불가에서 말하는 매우 짧은 순간 15. 곡사(曲射)를 하는데 쓰이는 화포 16. 민가에서 정성스럽고 소박하게 차린 밥상을 일컫는 고사어.